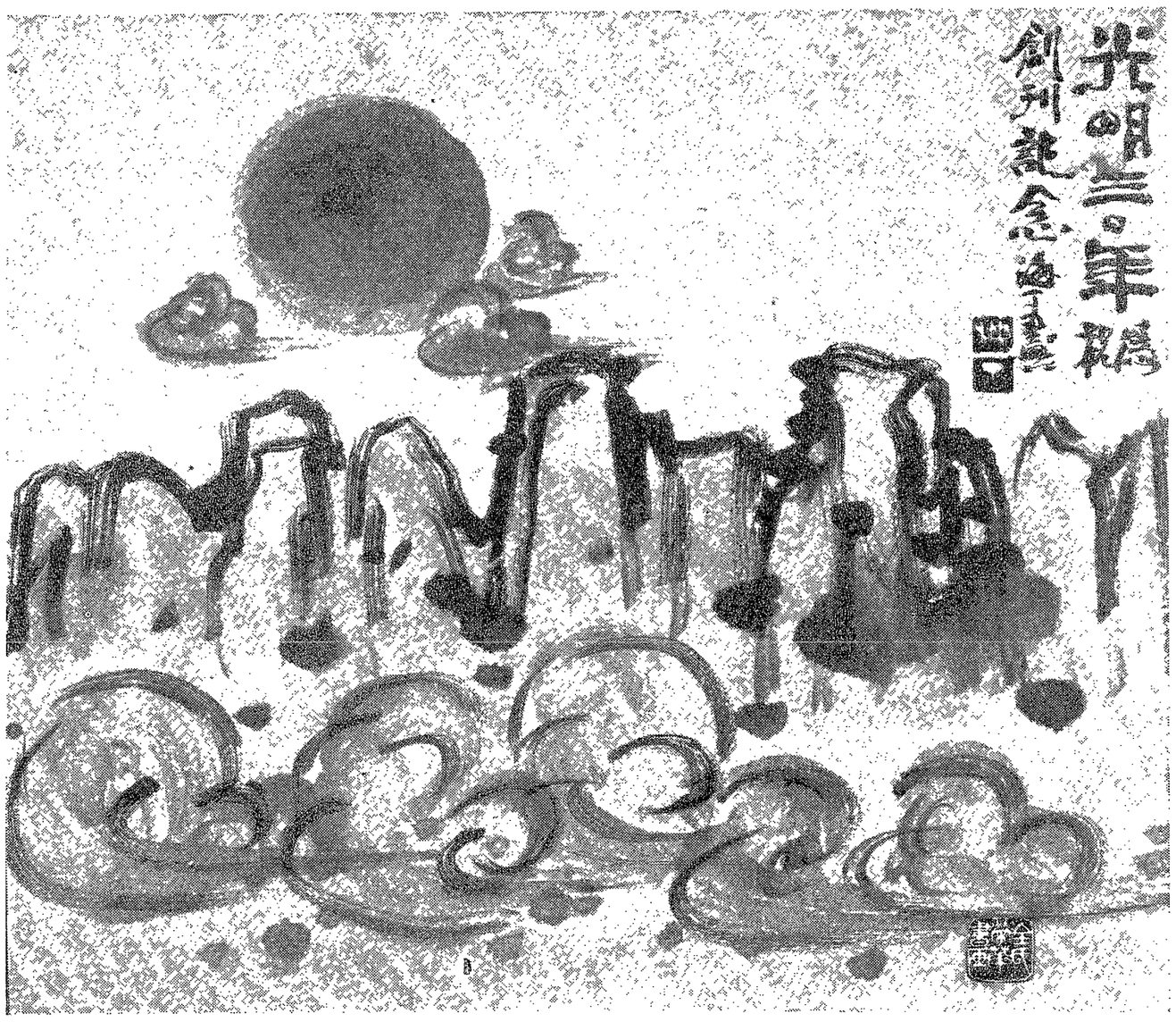
東岳에 뿌리내린 正論 30年



創刊 30周年 기념특화

東大新聞

發行人 鄭在世 / 編輯人 崔世和 / 印刷人 方又榮
主幹 洪起三 / 編輯局長 金容燦 / 編輯部長 林翼斗

發行所
우편번호 100
서울시 中區 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新聞社
電話交換 ☎ 8131~9
本社直通 ☎ 8577

每週火曜日發行

今週一言

異敎夫利養,
泥洹趣不同,
能諦是知者,
比丘眞佛子.
不樂着利養
閑居却亂意.

하나는 이양(利養 …부귀)의 길, 하나는 「열반」의 길 —이것을 밝게 아는 사람은 참 「비구」요, 부처님 제자다. 그는 부귀를 즐기지 않고 한가이 살아 마음이 편안하다.

<法句經>

祝賀揮毫

祝東大新聞創刊三十周年之慶

庚申四月上浣 時菴裵吉基

經天緯地

裵 吉 基 <佛敎大교수·서예가>

全 榮 華 <佛敎大교수·동양화가>

◇創刊 30周年 特輯號 차례

面	特輯內容및記事
1면	▲묵화=전영화교수 ▲취호=배길기교수 ▲축시=홍신선 (同門·詩人) 교수 ▲차 례 ▲금주일언
2〃	▲대학한화=김복선교수 ▲宗敎와 哲學=김항배교수 ▲학생사설
3〃	▲총장 기념사 ▲이사장 축사 ▲본지를 보는눈=장원종교수, 한대원집장, 언론인
4〃	▲學生投者 앙케이트조사
5〃	▲本紙의 발자취 : 창 간 주 변=이병주교수 송역주간시대=김택근(풍문) 현 재=편집부
6〃 7〃	▲창간 30주년기념 세미나 요지 사회변동과 신문의 역할=宋建鎬선생 70년대 대학신문의 반성=劉載天교수 80년대 대학신문의 방향=李相回교수 민주화 시대의 大學言論=韓相範교수
8〃 9〃	▲4.19특집 4.19현장 르뽀 교 수 논 문=정용길교수 학생 〃 =김기봉 (사학·4) 군 기록으로본 4·19 그때 그모습
10〃	▲한국사에 나타난 민중운동 고려시대의 민중봉기 : 김창수교수 ▲선거시행세칙 전문
11〃	▲記事 ▲보리수;한상련교수
12〃	▲만화 ▲메아리 ▲詩 ▲수필 : 나비야, 내 젊은 목숨아 ▲투고함 : 실력행사만이 능사인가 ▲신간안내 ▲문화단신 ▲인터뷰 : 한국문학 신인문학상 수상자

날아오르라 東國의 정신이여

東大新聞 30돌을 기리며

洪 申 善 <同門·詩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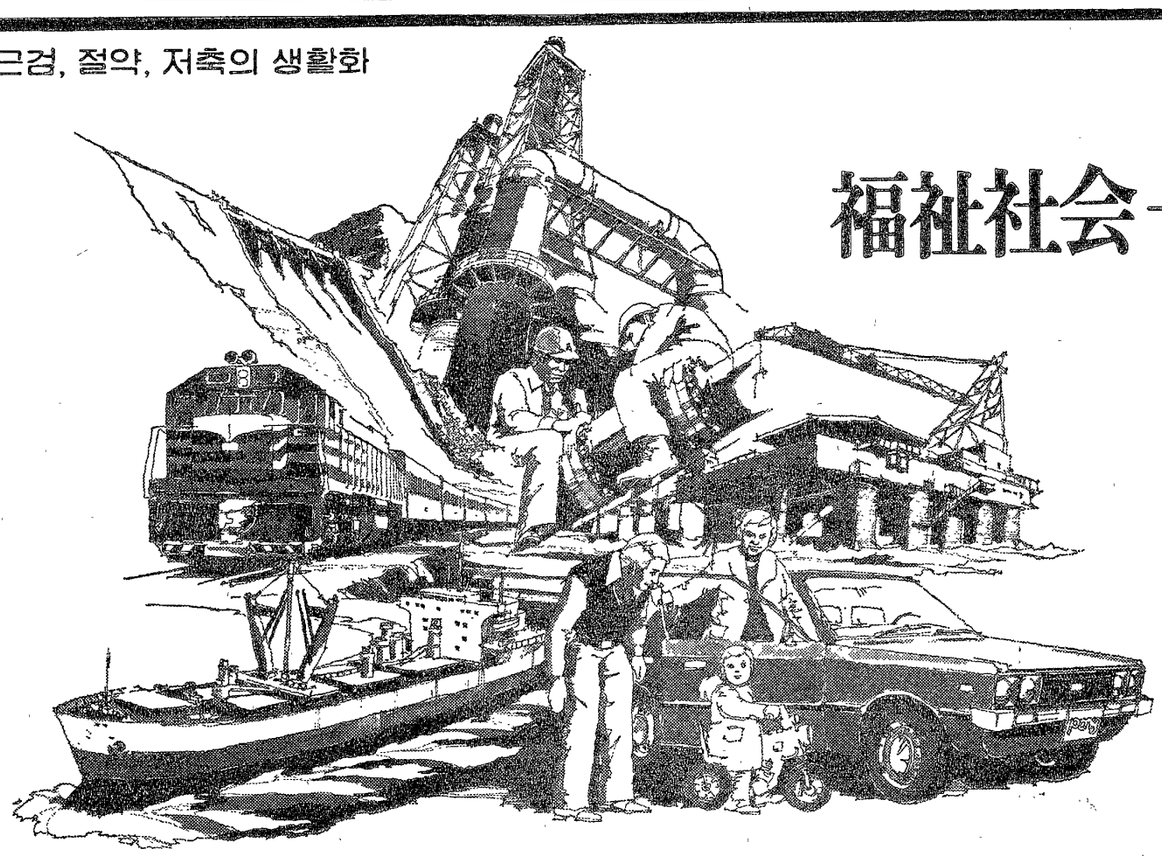
날아오르라
날아오르며 오늘을 박차
저 무한자비의 하늘에
뎌 아름다운 얼굴 들고
날아오르라
천구백오십년 사월 보름 이 나라 첫
대학의 우렁찬 음성으로
탄생의 울음 터트린
그대
東大新聞。

드높은 기개 더욱 높아지는
그대 곁에
어느덧 이 시대의 봄이 오고 바람 불고
그리하여 더욱 늠름히
날아오르라
삼십년의 눈비, 삼십년의 뜨거운 목소리에
자유 진리 새겨
헤아려 온 시간。
時間은 오로지
뎌 높은 뎌 먼 年代를 내려다 볼뿐이니
釜山의 假校舍에서
환도의 무너진 거리에서
4·19의 성난 아픔 속에서
그대
곧고 날카로이
行間마다 정의를 물었었다

三千세계 度世의 큰 날개치며 날아오르며
東大新聞이여
바라보아라
저기 未來로만 들려있는 하늘에 무엇이 있는가
장년의 그대 꿈이
새 역사의 노을이
그대의 양심이
서려있다。 물들어 흐르고 있다。

오늘 바람은 뜨겁고
동악의 젊은 꽃들 우렁찬 소리 열어웃으니
서른 돌의 장년으로
이 땅에
이 시대 東國에
그대
새로운 자부이거라
東大新聞이여
우리 마지막 중의 마지막 진실이여。

근검, 절약, 저축의 생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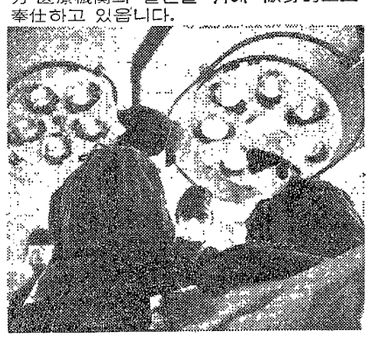
=東大新聞 創刊 30周年=

福祉社会—우리 모두의 所望입니다

重工業 발전으로
福祉社会 건설,
그것은 우리의 信念입니다.

現代는 国内外에서
誠実하게 땀흘리며
우리 모두의 所望을
하나씩 実現해 나가고 있읍니다.

峨山財団은 全北 井邑, 全南 宝城, 江原 麟蹄, 忠南 保寧, 慶北 盈德등 의료 취약지역에 最新施設을 갖춘 5個 綜合病院을 建立, 開院하고 農漁民의 診療는 물론 地方 医療機関의 발전을 위해 献身的으로 奉仕하고 있읍니다.



現代

創刊 30周年에 부쳐

학생사설

東大新聞이 오늘로 創刊 30周年을 맞이한다. 50년대 6·25의 폐허, 60년대 4·19의 좌절, 70년대 유신체제의 不信등 숱한 격동을 겪으며 정상한 것이다. 한국의 현대 30년 역사속에서 大學人의 책임이 가장 부거웠던 만큼 大學의 公器로서 사명을 짊진 東大新聞의 책임또한 컸다. 더 말할 것도 없이 東大新聞은 한국 역사속에 물들어 있는 本校의 역사와 전통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왔다. 東大新聞의 분은 어느덧 4월 15일자 「민중의 지보로서 자부하는 학도가 사회의 여론을 지도하고 대중을 각성시키는 횃불」으로서 영광을 다하기 70년대를 맞이하여 이루면서 어떻게 지나보고 30년의 장년을 맞이한 것이

東大新聞 創刊30주년을 맞이하여

서른돌 長征 東大新聞

大學文化創造의 길잡이 「三十而立」… 自我完成할 때

張 竣 鄭在覺

東大新聞이 創刊 3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衷心으로 祝賀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公、私立 大學을 막론하고 大學新聞의 紙齡이 30年 (十六二號) 에 이른 實例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東國」은 佛陀의 大乘精神속에서 慶州·鐘心의 人格을 完成해야할 것이며, 「三十而立」이라, 人生으로 치면 主體的 自我를 스스로 주추하는 나이다。

뿐만아니 學而不厭하고 誨人不倦의 精神을 발전적으로 調和시킴도 또한 오늘의 젊은이들에게 必要한 學業중의 하나가 아닐 수 없다。오늘날 大學의 이러한 調和的 機能의 추구를 부시할 때, 여기에 대한 比重있는 言論의 責任·義務·權利에 대한 比重있는 言論의 責任·義務·權利에 대한 比重있는 言論의 責任·義務·權利

批判기능 강화된 學生代議紙로

創刊 30주년기념

436명 대상 男90.4% 女9.6%

Ⅰ、東大新聞에 대한 평가·관심도

本校의 학생 독자들을 「東大新聞」의 성격이 종합학교적인 특색 색채가 짙고, 대체로 보수성이 강하다고 지적했으며, 他大學新聞과 비교할 때는 내용면에서는 다소 떨어지나, 편집면에서는 대체로 우월하다고 평하고 있다. 한편 학생들의 각면 관심도를 보면 1面(기사면) 3面(학생활동면) 4面(문화면) 2面(교수면) 순으로 나타났고, 내용별로 고정난에 대한 관심도를 보면, 가십난인 「회전부대」가 압도적인 기를 얻고 있으며 「메아리」「사설」등에도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구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생들의 本紙를 구독하는 방법은 대체로 「동아한 부분만 읽는다」는 독자가 49·8%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를 통독한다」는 학생독자도 30·9%나 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독자가 東大新聞의 8面증면의 필요성을 절실히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東大新聞이 피내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서는 71%나되는 학생들이 「학교당국자들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40·1%)또는 「학교당국자들이 이상적이지는 않지만 학생들의 견해를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30·9%)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반면, 「학교당국자들이 이상적이지는 않지만 학생들의 견해를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38·7%)와 「동아신문이 편집면에서 우월하다」(30·9%)는 의견이 많았으며 「동아신문이 훨씬 우월하다」가 10·3%였다.

또한 「東大新聞의 특성」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학원자주화를 위한 대변지여야 한다」(25·5%)와 「학생운동의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21·7%)는 의견이 많았으며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공정성있는 교내 독립기구로 되어야 한다」(37·8%)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또한 「東大新聞의 사설필자」에 대해서는 97·3%의 학생들이 「大學新聞의 사설을 누가 써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55%가 「대학교수」라고 답했으며 20%가 「학생」이라고 답했으며 「사설」에 대한 관심도는 17·6%가 「적극적」이라고 답했으며 7·4%가 「적극적」이라고 답했다.

여기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적극적인 「사설」과 「논설위원」이라는 질문에는 55%가 「대학교수」라고 답했으며 「사설」과 「논설위원」의 필진으로는 「교수와 학생기자가 써야 한다」고 답한 독자가 46·7%였다.

「大學新聞의 사설필자」 97·3%

「大學新聞의 사설을 누가 써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교수사설단과 학생사설단의 병용」이 50·6%였으며, 「교수와 학생기자가 함께 참여하는 논설위원」가 46·7%였다고 답한 독자가 97·3%의 학생들이 대학신문에 있어서의 社說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단독으로 「교수사설단」이 써야 한다는 의견은 2·7%에 불과하였다.

현재의 논설위원단의 명칭을 「교수사설단」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이 71%로 반대 29%보다 훨씬 많았으며 「교수사설단」이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교수·학생사설단」이라는 명칭이 가장 많았으며 「교수·학생

兒時의 「東大月報」시절

〈물리교수·국문학〉 李丙疇

창간호가 들인 「東大新聞」 石造館 짓기위해 배부중단

내가 「東大月報」를 맡았을 때는 새파란 강사 시절이다. 당시 梁柱東선생께서 大學院長으로 취임하셨는데 月報나마 신문을 續刊해야 한다는 분부에 저역을 할 수 없어 無報酬 편집을 맡았었다. 그런데 야릇하게도 創刊號가 두번이나 나온 우리 「東大新聞」이다。처음은 내가 대학을 졸업한 직후인 1950년 4월15일에 「東大新聞」으로 떠났고 朴來喜형이 편집했고, 두번째는 다브로이드판 4면으로 부산 피난시절 鄭炯孝 李相恩형이 편집해서 나왔으니 말이다。내가 편집을 맡기는 1953년 11월30일 당시의 文理大學長이셨던 閔泳珪선생 책임하에 낸 타브로이드판 4페이지로 題號는 「東大月報」였다。

그럼기가 내가 맡아서 면 신문은 정확히 따지면 3호인 셈이로는 2호다。그렇지만 야단이 났다。아직 하가도 나지 않은 學內의 많은 유명인 3호가 나오자 他校 문인 교수 「大學新聞」의 號數에 비겨 나이테가 뒤지기 때문에 4호부터는 아예 14호로 고쳐 발행했다。그럼만 해도 한참이 밀려와 을 시절이다。紙幅을 편집자의 마음대로 고쳐도 말이었었으니 실로 오지경속이었다。이 때 옷날 우리 「東大新聞」을 오늘의 원치에까지 올려 놓기에 심신을 바친 宋赫교수가 學內 학생으로서 온갖 잔심부름을 다하였다。지금 생각해도 고맙기 그지없는 심지의 하나다。

그럼데 52년도에 정치학과를 나와 대학원에 입학한 金鎭福씨 첫번째 유학의 學內 출신자들을 결합 지금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그때 신문을 맡았었는 모든 정비와 또 그에 따르는 기획도 같게되어 비로소 신문사의 체제를 갖춘셈이다。따라서 모든것을 서로 의논하여 일일이에게까지 확산되었는지 아니면 大衆文化를 대학이 육수

大學人과 大學新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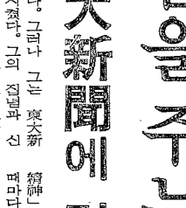
大學이란 폭위와 높임을 지닌 성별된 人間이 모인 특수집단이라 예전의 개념이 점차 무너져 내리고있는 느낌이다。대학의 문화가 일부에게까지 확산되었는지 아니면 大衆文化를 대학이 육수해 버렸는지 모르지만 大學이 世態의 바람에 민감하게 흔들거리고 있다。大學人, 大學社會를 보는눈이 날카졌다。그럴에도 大學新聞 學生記者는 우리에게 날내 신선한 느낌을 준다。

大學新聞이 이시점도 왕성되를 유지, 무운이 뚜렷한 자신의 영역을 개척하길는 확기는 우리에게 커다란 격려였다。

그것은 갈수록 현실과 너무도 타협하는 大學人의 의식구조와 안일과 만족을 추구하며 자신의 삶을 사회적인 관식에 맞추는 世態에 우리가 정당하진할 대학신문에 거는 기대는 크기만 하다。

거의 모든 대학신문이 50년대에 창간되었으니 일하면 얻는 나이에 이르렀다。이제 대학신문을 일반신문이 충격과 후생부에 집착, 현실에 매달릴때 더욱 더 스스럼 독립으로 세상을 살피면 똑똑히 말하여 보는 것이 우리가 정당하진할 대학신문에 거는 기대는 크기만 하다。

그것은 大學人의 의식구조와 만족을 추구하며 자신의 삶을 사회적인 관식에 맞추는 世態에 우리가 정당하진할 대학신문에 거는 기대는 크기만 하다。



〈前전진부장〉 金澤根

우리에게 신선함을 주는 學生記者

宋赫·東大新聞에 길이 남을 산증인

宋赫교수는 몽학 국문학 연분의 오늘을 진단했던 그에게 東大新聞과 東國大學報가 진 빚은 크기만 하다。

그는 1957년엔 學生福祉處長, 61년엔 編輯局長, 또한 65년엔 學生處長 그가 학기 마다에 20년이상 東大新聞社에 봉직했다。

우리는 감히 1957년 이후 부터 그가 경주대학교로 옮겨 갈때 까지 79년 3월까지를 「東大新聞의 확산되는 역사라고 해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난 한 인간의 마스컴속에 간직된 보통을 뛰어넘는 東大新聞의 접요하고도 특유 색깔까지 싹을 피웁게 해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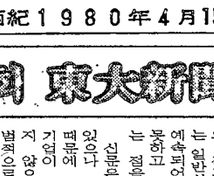
大學言論과 方向

性의 회복만을 염원해 왔을뿐 구체적인 大學言論의 방향이 모색되지도, 정립되지 못……○
했다. 이에 대학발전의 일익을 담당해왔고, 大學言論의 기수로서 창간 30주년을 맞……○
은 本社에서는 제1회 東大新聞 세미나를 열어 大學言論을 정립하고자 하며 그 오……○
지를 여기에 싣는다. ……○

創刊 30주년 기념 제1회 東大新聞 세미나 요지

社會變動과 新聞의 역할

——大學新聞을 中心으로



〈司會 宋建鎬 편집국장〉

1

대학신문은 학생들을 상대로하는데 비해 대중지인 일반신문은 국민 일반을 상대로하는 영리적 신문이다. 대학신문과 일반신문은 이같이 서로 그기능이 다르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 있어선 다른 어떤나라에 있어서보다도 대학신문의 구실이 크다고 보아야겠다. 여기에는 두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우리나라가 지난날의 낡은 「유산체제」로 부터 새로운 민주주의 식민로 발전하는 진통기라는 점이고 다른하나는 일반신문이 정치권력과 재력에 예속되어 신문이로서의 책임을 못하고 독자 대중을 위한 신문이 되지 못하는 점을 들어야겠다.

신문은 일종의 기업성을 띠고 있으나 그것이 제1차는 큰 문화성을 띠므로 언론이 확고한 독립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민주주의가 모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나라에서 신문기업이 모두 장한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단 한신문도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신문기업이 없다.

권력에 예속되어 있거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언론이 권력의 부패기업의 보호기관이 되어 어느한 신문도 신문이 마땅히 가져야할 「독립정」을 유지하지못하고있다.

대부분 언론기관이 권력의 부패로 봉사업을 지속했거나 「유신체제」지지를 서슴치않았거나 하였다. 권력과 언론이 유착관계를 유지하고있고 언론이 권력의 일방적 방제기업으로 전락되어 독재정의 시녀구실을 하여 어느 한신문도 정당한 비판을 가할 수 없었다. 이같은 현상은 대학신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대학신문이 학원의 자주성을 지키고 학원민주화를 위한 언론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언론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유로운 입장에서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1. 大學新聞의 성격에 대한 反省

70년대에 들어와 우리나라의 대학인구는 급격히 증가하여 1970년에 이르러는 대학생수가 90여만에 달하였다. 이들 대학생은 우리나라의 장래를 짊어지고 나갈 지도층 인사로 성장하게 되므로 대학생의 여론은 그들이 기획주의적 본성을 여지없이 노출시키고 있는 것으로 지적할 수 있다. 6년간 유지해온 최고권력자 박정희 정권이 붕괴되고 7·8년간 국민의 지탄속에서도 그만큼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언론의 절대적 협조가 큰 힘이었다. 「유신헌법」이 「국민투표」이라는 형식을 빌어 통과되었다. 「국민투표」가 실시되기 전에 대학생들은 「유신헌법」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국민투표」를 거부하라는 시위를 벌였다. 이러한 시위는 그들의 기획주의적 본성에 입각한 것이었다. 그러나 언론기관은 이러한 학생들의 시위를 「정치적 불안」이고 「국민투표」방해이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왜곡 보도하였다. 이러한 언론의 왜곡보도는 학생들의 분노를 폭발시켰고 이것이 10월 유신의 붕괴를 촉진시킨 요인이 되었다.

2

지난 5, 6년간 유지해온 최고권력자 박정희 정권이 붕괴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도 언론이 권력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상실하고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여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된 것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언론이 권력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상실하고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여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된 것은 언론기관 자체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하겠지만 언론기관을 이렇게 만든 것은 박정희 정권이 언론기관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언론기관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기 위해 온갖 탄압을 가해왔기 때문이다. 박정희 정권은 언론기관을 통제하기 위해 언론기관을 정권에 협조하는 기관과 협조하지 않는 기관으로 분리하여 협조하는 기관에는 각종 특혜를 베풀어 주었고 협조하지 않는 기관에는 각종 탄압을 가하였다. 언론기관에 대한 탄압은 언론기관의 경제적 기반을 파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언론기관의 간부를 연행하여 고문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그 방법은 다양하였다. 언론기관에 대한 탄압은 박정희 정권이 붕괴된 후에도 계속되었다. 전두환 정권은 언론기관을 통폐합하여 언론기관의 수를 대폭 줄이고 언론기관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기 위해 언론기관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러한

創刊 30주년 기념 제1회 東大新聞 세미나 요지

民主化時代의 大學言論과 論理와 條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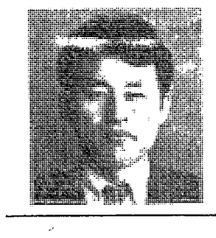
曲節을 통한 소중한 膳物

——大學言論의 당면과제

韓 相 範 〈本校言論法대학장〉

大學文化創造하는 大學新聞의 방향

——80年代 大學新聞의 指向點



李 相 回 〈연세대·신문학과 교수〉

他律的 規制 벗어나야 諸機能 발휘

現實批判의 「토론장」이 되어야

自主의 기틀을 떳떳하게 가꿀 책임 안돼

全 大學人은 傍觀·局外者 돼선 木鐸

大學社會의 거울이며 旗手 되어야

現實과 遊離된 大學言論 反省을

現時點에서 본 大學言論의 狀況과 課題

理性의 復權·知性의 發揚을

一、序言

1972년10월 유화당정권이 維新憲法을 國民投票를 통해 통과시킴으로써 維新體制를 확립한후 다각적한 政治權力을 행사하기에이르자 言論은 政治權力의 잠재한 統制를 발게되었고 政權의 政治的目的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다시말해 政權은 국민을 動員함과 아울러 소외를 創出하고 政權의 正當性을 부여하는데에 급급한 나머지 言論을 社會統制의 도구로 활용하는 政治環境속에서는 言論의 본래의 책임과 사명을 다할 수 없었다。

自由民主主義國家에서의 言論은 대개 勝利를 追求하는 企業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언론을 一般企業과 같은 것으로만 파악해서는 안된다。權力의 越權行爲와 權利의 侵害를 감시하며 國民의 參與者인 國民이 적절한 判斷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정치의 자유와 더불어 言論의 자유가 없이는 정치의 정당성과 효율적인 運營을 기대할 수 없다。

1970年代는 정치권과 언론이 상호갈등의 관계로 언론이 정권의 영향권 속에 예속된 언론의 암흑시대였다。다시말해 지난10년간을 돌이켜보면 언론은 본래의 책임을 다하지못하고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무기력한 상태를 허용하지 않았다。

필자가 1980년대 大學新聞의 바람직한 方向에 관해 70년대의 韓國言論을 反省하는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무엇보다 먼저 70년대 言論環境이 權力의 政治的目的을 달성하는데 그쳤을 뿐 權力을 위해봉사하지 못한 책임을 전혀 이로운 律的 힘의 작용에 돌려놓았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예나하면 權力에 의한 他律的인 힘의 작용으로 言論이 無氣力해진점은 사실이지만, 言論의 불의에 책임을 回避하고 언론기업의 영리추구를 빌미로 언론기업의 영리추구를 빌미로 언론기업의 영리추구를 빌미로 창달도 바로 言論의 압력구를 招來했음에 있기때문이다。

그러나 大學新聞은 80년대의 문화에서 大學의 言論을 누구에게 영향주려는 의식을 버리고 言論의 自由를 행사하기 위해 大學新聞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法律을 제정하는 것이다。

大學新聞은 大學生들이 만드는 大學人의 신문이 되어야 한다。

어떤 社說에서도 大學人의 願望을 삽입할수 없다。

학나하면 지금껏 自律性의 회복을 위한 大學人의 격의 없는 對話와 討論을 유도해야하고 또論題의 選擇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言論의 自律性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二、大學新聞

大學新聞은 大學이라는 特殊社會의 成員을 위해 발간되는 신문으로서 大學이 眞理를 探求하는 學問의 殿堂으로 機能할 수 있도록 제반 言論環境을 保障하는 言論의 自律性이 필요하다。

大學이 知識이나 情報를 生産하는 學術社會라는 점에서 現代社會의 縮圖라고 볼수 있다。따라서 大學新聞은 大學社會의 縮圖로서 大學人의 關心事를 다루는 것은 물론 現代社會의 重大한 問題에 대해서도 大學人의 立場에서 論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大學新聞은 大學社會의 現實問題의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책무를 지고 있다。

現代社會의 問題에 대해 客觀的인 立場을 견지하고 現實問題의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물론 그 근원을 추구하는 것이다。

대학이 現實問題를 외면해서도 안되지만 현실문제에 지나치게 집착해서도 안된다는 뜻이다。大學은 未來指向的立場에서 바람직한 미래의 社會를 설계하고 실현하는데 리더를 양성하는 것이 大學의 社會的 責務라고 본다。

대학이 現實問題를 외면해서도 안되지만 현실문제에 지나치게 집착해서도 안된다는 뜻이다。大學은 未來指向的立場에서 바람직한 미래의 社會를 설계하고 실현하는데 리더를 양성하는 것이 大學의 社會的 責務라고 본다。

大學言論의 論理와 條件

思想·意見의 표현으로서 言論은 그것이 자유로운 것이어야한다고 할때에 누구로부터 자유이냐 하는 점을 되새겨 보아야 하겠다。그 자유는 旣成權威에 대한 批判과 論爭 또는 반대의 자유라는 점에 핵심이 있다。찬성과 추종 또는 지지의자유도 포함하지만 그것이 크게점 强調되는 이유는 旣成權威가 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아닐 것이다。그러면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누구에 대한 비판과 누구와의 論爭 또는 반대인가?사회적으로 旣成權威 또는 權力과의 문제이고 구체적으로는 不合理한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大學의 言論을 두고 볼때에 그것은 사회의 一般言論과는 다른 특성과 기능이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사회의 一般言論企業은 상업정의 性格이 크다。그런데 대학의 言論은 상업정에 크게 제약을 받지는 않는다。또한 대학의 언론은 정치적 派閥性을 크게 의식하지 않고 그 나름대로의 公正을 추구하는 正論을 펴수있다는 우리의 言論이 編輯이나 報道論評에서 一般社會의 언론에 비해 훨씬 자유스러운 大學人대로의 지난 특권는 관점에서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충족시켜 줄수록 國民이 적절있는 判斷을 할수있는 條件을 造成하고 여론을 形成하는 것이 大學言論의 使命이다。

大學言論의 論理와 條件은 그것이 自律的이냐 아니냐에 따라 결정된다。自律性이 없는 言論은 아무리 많은 言論이 있다해도 그것은 言論의 多樣性이 아니라 言論의 貧困이다。

自律的 規制 벗어나야 現實批判의 「토론장」이 되어야

大學文化創造하는 大學新聞의 指向點

——80年代 大學新聞의 방향

○……지금 우리는 大學의 言論이 自律을 통한 自由를 정립하는 진통과 함께 시련을 겪고
○……있다。이 새로운 역사적 전환기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게 아니라 오랜 세월을
○……피눈물나는 아픔끝에 쟁취한 소중한 자유인 것이다。70년대 대학언론을 돌이켜보면
○……自律性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이러한 상황하에서는 自律

祝 慶
東大新聞 創刊 30周年
東國의 무궁한 發展을 祈願합니다
추식회사 제일엔터프라이즈 대표이사 김 재 국
태우동물약품주식회사 대표이사 양 승 철
동오요업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태 성
풍천화섬주식회사 대표이사 성 정 기
창원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오 창 균
서울여객자동차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종 선
동아자동차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정 기 영
한국증권대체결제주식회사 대표이사 오 종 열
정진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강 수 희
효성수산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동 호
한국전기안전공사 이사장 안 종 열 〈무순〉

시 12년의 독재는……○
무너졌지만 그 고귀……○
한 정신은 기성질서……○
와 낡은 지도력에 의……○
해 짓밟히고 오히려 갖……○
은 비극과 혼란만을 증……○
대시켜왔다. 本紙에서는……○
민족에게 면면히 계승되어……○
온 4·19정신을 되새겨 보……○
기 위해 교수, 학생이 현대……○
적 관점에서 보는 「대학생……○
의 사회참여」 「4·19의 현……○
대적 의의」를 비롯하여 기……○
자가 살펴 보는 「기록으로……○
본 4·19」 「잊혀져 가는……○
4·19세대의 희상」 을……○
싣어 우리의 거울로……○
삼아보고자한다. ……○

特輯 四·一九 學生義擧 20周年

I

4·19라는 이 함숙 석마디는 항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벅찬 감격과 함께 一抹의 서운한 마음을 갖게한다.

이 서운한 마음은 1960년 4월19일 의롭고 용감하였던 이 젊은이들이 오직 民權을 위하여 절규하고, 피를 뿌려 마침내 봇이로 버티면 독재를 무너뜨리고 나라사상 처음으로 民權勝利의 만세소리를 제천만장에 울려퍼지게 하였음에도 民主憲政復活의 초석으로 5·16을 유발하게한 아쉬움 때문이다.

이 역사적 사건이 이제는 哀慕의 날의 일부가 되어버린지, 4·19精神이 아직도 이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그러나 오늘의 대학생들에게는 5·16을 전후하여 태어난 세대들이 많이 있으며, 또 4·19가 각급학교 학생들의 힘으로 독재를 무너뜨린 역사적 사건이라는 점에서 민족사상 4·19精神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책무가 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들은 모두 그들 나름대로의 試練이었고, 이 시련을 극복해나간 역사적 實證이 있다.

이 시련을 극복할 때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는 것은 당연한 論理의 귀결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4·19의 諸 運動도 모두 우리 역사에 있어서 최대혁명(革命)과 植民地로 부터의 獨立을 위한 그리고 自由民主主義의 실현을 위한 途程이라는 점에서 못 길게 말아들여야 할 줄로 안다.

광식의 自由獨政治體은 반체제인사들에대하여 무지비하게 탄압하였고, '5·26 釜山政治波動' 「四捨五入 改憲」 「二四波動」과 같은 정치적 사건과 광식의 유행어였던 「사사사사」 「백」 「국물」 「총은자리에 앉을때 봐주~!」 그리고 「각하 시월하시겠습니다」 등에서 보여 주듯이 부정 부패와 고급 공무원들의 과잉충성그리고 民生苦로 國民들로하여금 불만을 자아 하였다.

이러한 불만은 학생들의 「自由의 일반적인 불만을 추진하는 「自由의 종 민들이 「학생」과 「재야」의 「연합시위」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학생」을 「학원」과 「사회」로 분리시켰다.

그러나 학생들은 「학원의 자유」와 「사회정의」를 부르짖으며 「학생」과 「재야」의 「연합시위」를 주도하였다.

4·19 이후에 학생들은 「4·19의 정신」 「4·19의 혁명」 「4·19의 이념」 「4·19의 역사」 「4·19의 민족」 「4·19의 민주」 「4·19의 통일」 「4·19의 조국」 「4·19의 학생」 「4·19의 교육」 「4·19의 문화」 「4·19의 언론」 「4·19의 노동」 「4·19의 농민」 「4·19의 경제」 「4·19의 정치」 「4·19의 외교」 「4·19의 국방」 「4·19의 통일」 「4·19의 조국」 「4·19의 미래」 「4·19의 사회

四一九 學生義擧 20周年 特輯

○…… 오는 19일은 부
○……정과 불의를 타파하
○……고 이땅에 민주주의
○……의 참된 씨를 뿌리고
○……자 自由와 正義의 깃발
○……을 붉은피로 적시며 百
○……萬學徒가 民主革命을 위해
○……총 궐기한지 20돌을 맞는
○……역사적인 날이다. 무능과 부
○……패의 自由黨정권을 붕괴시키
○……고 제2共和國을 탄생시킨이
○……피의 대열에 본교 3천학
○……도는 최선봉에 서서 류혈
○……로 물진함으로써 학생
○……의거를 결정적 승리로이
○……끄는데 성공했으며 慶
○……熙라군의 사망과 30
○……여명의 중상자를 냈당
○……던 것이다. 그

그때 그모습
성난 獅子의 四月

사진제공 서울대학교 박물관

4·19 학우여럿, 이날 수업을 전폐한 전교생들의 뵤정을 목격하기 위해 였다。하나 둘 운동장으로 모이기시작한 학생의 수는 삽시간에 2천을 헤아리게되었다。몬이어 교정을 메운 학생들의 열띤 구호와 함성으로 들끓고 있었다。학생들은 「東國大學校」라고 쓴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경이로운 9시30분경 학교의 담루를 뿌리치며 교문을 박차고 뛰어나왔다。

이미 교문밖에는 단단히 가로막고서 있었다。경찰관들이 학생들을 막기 위해 교문을 폐쇄하고 사정없이 휘두르는 경찰봉 솜씨로 길목이가 혈어졌다。

그러나 숙적으로 우세한 본교 데모대는 이들의 저지활동을 뚜파 3가동으로 늘어선 市民들의 열렬한 歡呼의 박수를 받으며 질서정연하게 구보대오를 하였다。이때 경찰들도 본교생들을 보자 감동을 한 채 물러오로 사라졌다。

3가에 이르러 백색 경찰차의 저지로 학교 주변했으나 몬며 열을 정돈하고 시정앞에 이르러 선언문을 낭독함후 의사당앞을 이제 도달했다。그러나 의사당앞은 미 서울大를 비롯한 서울시내 각대 모대가 집결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그래서 본교생들은 경무대방향을 목표로 연세 물통처럼 나갔다。

이때의 상황을 高眞敏 (당시 朝鮮日報논설위원) 씨는 65년「思想界」4月號논설우에서 다음과같이 기록하고있다。

Ⅰ、序

해마다 4월이 오면 전동재 울을 속에 젊은 다듸듸鄙들의 희의 소연이 들리고 해마다 4월이 오면 붉을 선구하는 진달래처럼 민족의 꽃 향기 은은히 퍼진다。제월은 흑끔보 4월의 續章을 아니라 역사책 버로서만 간직할것이 아니다。정신의 정을 配著 中心의 儒敎主義 歷史觀에서탈 피하여 피지배자와 소외층의 존재를 확인하고 歷史的 역할을 중요시 정해 나가야한다。世界史는 人間의自由·平等·平和·正義를 實現하기 위 해 발전해온 進步的 歷史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민족의 자주·평등에 관한 歷史的 自覺을 朝鮮時代末의 反封建·反外勢에서 싹틔 歷史上 최초의 조직적 민중운동인 동학농민 혁명으로 발전한다。다시 社會개 혁의식을 高揚시킨 反帝國·自主意識의 抬頭로 3·1운동을 일으켰고 해방 후에는 民衆의 民主·主體意識이 4·19를 일으킨 것이다。

4·19는 서양의 정치사적인 면에 서 비교 할다는 것보다는 2차대 전후 독립된 제3세계적 입장에서 고찰되어야한다。4月革命이 일어난 1960년 4月革命의 추동이 되어 4月革命의 歷史的 意義

나라보 이럼한 상황이 1960년대의 歷史이다。

그럼으로 이렇게 전후의 사정에 서 우리민족을 얽매고있는 것은 상황, 같은 조건하의 식민주의 경제적 예속, 같은 것이다。4·19는 이러한 관점에서 再評價되어야 할 것이다。

Ⅱ、問題提起

歷史上의 한 事件을 이렇게 보느냐 분석하느 간단하지 않을뿐더러 중요한 문제이다。4·19는 현재의 정치적 제와 미래에대한 희망과 직결된다。그러기에 4·19를 한時代의 사건으로 단순히 과거의 事實로 취급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4·19의 精神과 意義를 민족사적 맥락속에서 재조명하고 평가하는 것은 현재의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이다。

Ⅲ、革命의 背景

해방후 민족적 민주적 주체의 건설이 당면한 과제였다。그러나 해방은 우리민족에게 정치적 자주독립을 가져다주지 못하였다。해방과 동시에 남북에 각각 외세가 들어서면서 민족의 분단이 고정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분단상황에서 남한에서는 미군정이 실시되었다。미군정은 친일파를 다시 등용하여 민족주의 세력을 탄압하였다。이러한 분단과 외세의 지배는 민족의 통일과 자주적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었다。

이러한 분단과 외세의 지배에 대한 민족의 저항은 1946년 9월 총파업과 10월 대구폭동으로 폭발하였다。

1948년 정부수립과 더불어 미군정은 종식되고 정부수립과 동시에 한국군사고문단이 설치되었다。이승만은 6·25전쟁을 기화로 전쟁이 한창진행중에 자기의 권력 강화를 위하여 1951년 대한청년단의 해체, 1952년 부산정치파동, 1954년 11월 27일의 四捨五入 헌법개정을 단행하여 계속 독재권력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수탈은 민중의 저항을 불러일으켰으며 민중은 4·19를 일으킨 것이다。

4·19는 서양의 정치사적인 면에 서 비교 할다는 것보다는 2차대전후 독립된 제3세계적 입장에서 고찰되어야한다。4月革命이 일어난 1960년 4월19일의 추동이 되어 4月革命의 歷史的 意義

나라보 이럼한 상황이 1960년대의 歷史이다。

그럼으로 이렇게 전후의 사정에 서 우리민족을 얽매고있는 것은 상황, 같은 조건하의 식민주의 경제적 예속, 같은 것이다。4·19는 이러한 관점에서 再評價되어야 할 것이다。

Ⅲ、革命의 背景

해방은

韓国史에나타난 民衆運動

高麗時代의 民衆運動

〈사범대교수·한국사〉 金昌洙

1

우리나라 民衆運動史上에 있어서 그 투쟁의 목표와 意識의 성장이 두드러진 것을 高麗時代의 明宗·神宗朝를 중심으로한 시기에 찾기란 어려운 일이다. 농민·천민의 난을 들수 있을것이다。

北魏에서 있었다。즉 明宗2년(1172) 서북경의 昌州(昌城)、鐵州(鐵山) 에서의 농민봉기가 그것인데, 이들 진압하기 위하여 실무 兵馬使가 동원되었다는 점에서 일반 地方官의 농민에대한 태도와는 역시 차이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이어서 明宗5年(1175)에는 이른바 '南賊·石竹之乱'이 일어났다。

이 亂에대한 고려사의 기록은 다만 南賊이라고하여 구체적인 역을 밝히지않고 있으므로 어느 郡縣인지 불명하지않으나 南北의 구별로보아 대체로 慶尙·全羅 하였다。그리고 그 봉기한 세력의 주체적기반이 되었을 것이 짐작된다。이어 神宗元年(1198) 慶尙道 沙火所에서 일어난 망이·망소이의 난은 그 지도자가 농민을 몰아 충동하여 일으킨 점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이다。망이·망소이는 명학소(鳴鶴所)의 주민이었다。명학소는 무신정권의 수탈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이와같은 高麗時代의 民衆運動에 대하여는 종래 民亂、農民叛亂、農民二揆등으로 불리어져 역사상 그것이 지니는 위치와 性格、그리고 意義등이 비교적 파악되지 않았다。그최소평가된 점이 이유의 하나는 역사의 추진력으로서 귀족적 수수 엘리트의 역할을 중시한 나머지 民衆의 역할을 輕視한데서 온 경향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유의한다면 高麗時代의 民衆運動을 韓國史에 있어서 마땅히 再評價의 必要가 있다。

2

1170년의 武臣에 의한 구臣貴族政治에 종지부를 찍게 하였다。武臣의 文臣政權을 무너뜨린 배후에는 문신정권에 대한 농민의 저항이 있었다。그러나 농민이 文臣貴族政權을 타도한 것이 아니며, 이를 타도한 것은 어디까지나 武臣이었고, 농민과 무신과는 직접적인 연결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따라서 농민출신인 하급 군인의 봉기를 매개로 하여 兩者의 간접적인 관계가 있었을 뿐이다。

이 무렵 三國時代에도 각처에서 농민들이 봉기하였다。특히 李義旼집권기에는 그의 학정으로말미암아 정치기강의 문란을 농민이 더한층 가중시켰다。이 亂은 慶尙·全羅·忠淸·江原道·黃海道등 전국적인 규모의 현상으로 농민이 봉기하는 사회적 소지를 마련해주고 있는 것이다。그것은 農業生産만 아니라 貴族·官吏의 수탈에 대한 농민의 저항이 있었다。그러한 농민봉기가 비발한 것은 李義旼집권기에 있어서였다。그것은 農民·部曲·所의 賤民·雜徒·總吏등 각신분층의 民衆이 貴族政權의 土地兼併으로 말미암은 토지제도의 문란과 지방관리의 가렴주구 그리고 조세·부역의 과중한 부담등 농민생활을 곤궁에 몰아넣어, 이들을 流民化의 과정을 거쳐 農民봉기로 발전한 것이다。

이러한 농민들의 움직임은 무신정권기에 들어가서도 武臣의農民政權을 위한 支配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그농민 중앙의 政權을 장악한 무신들은 자기들의 지배를 강화하기 위하여 농민봉기를 무마하고 이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른바 '勸農使'를 파견하였다。그러나 이 勸農使는 농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기보다는 오히려 농민을 수탈하는 기관으로 변질되었다。

이와같은 농민들의 봉기는 정권을 장악한 무신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으며, 이들은 이를 진압시켰을뿐 아니라 정권유지를 위하여 더욱 억압적인 정치를 행하였다。이러한 무신정권의 수탈과 억압은 농민들로 하여금 더욱 봉기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농민봉기는 무신정권의 붕괴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이와같이 高麗時代의 民衆運動은 무신정권의 붕괴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 이후 朝鮮時代에 있어서도 農民·天民의 봉기가 계속되었다。

3

무신정권기에 일어난 民亂은 농민봉기를 비롯하여 雜所民의 亂、部曲人、進士、奏事僧등이 商賤 宗室 출신인 承喜 宗旨 등과 같은 지배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것이다。이들은 지배층 내부의 모순과 갈등이 표출되어 일어난 것이다。

이들 중 承喜의 난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배층 내부의 모순과 갈등이 표출되어 일어난 것이다。이들은 지배층 내부의 모순과 갈등이 표출되어 일어난 것이다。이들은 지배층 내부의 모순과 갈등이 표출되어 일어난 것이다。

이들 중 承喜의 난을 제외하고는 모두

總學生會長 0명 입후보

18日 부재자 투표 실시

17·18일 소견발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

전기 관리위원회 (위원장=정기정) 에서는 14일 (月) 12시에 8명의 총학생회장입후보자를 비롯한 각 단과대 학생회장 입후보자의 등록을 마감하였으며 22일 실시하는 총선일정을 발표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각 총학생회장 입후보자는 제1학기 8개의 투표소에서 실시되며 (전자공학과·3) 백상훈 (농업·3) 유한봉 (공의·3) 이진섭 (법학과·3) 장지석 (경영학과·3) 김욱제 (경영학과·3) 남덕주 (문학과·3)의 8명이다.

총학생회장 입후보자는 15일 오후 1시, 17일 오후 1시, 18일 오전11시에 3차에 걸쳐 합동 소견 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며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 입후보자는 16일, 21일에 합동 소견 발표회를 가진다.

투표는 18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부재자 투표를 실시하며, 22일 해수욕장의 21명이내, 이동 5명이내 개표소 전체 합계 9명) 이 지구하나 2명씩 선출하는 수업료 전액 면제 5명, 등록금장학생 (5명)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해주 (법정1) ▲송경석 (사2) ▲장상석 (사2) ▲신도상 (수) ▲손금태 (수).

고시장학생선발

김해주 등 5명

고시지도위원회 (지도교수 = 鄭用謨교수) 에서는 法政2학년 재학중 (전자공학과·3) 김해주군 등 5명을 대상으로 지난 8일 (火) 대학원 세미나실에서 「고시특별장학생」 선발을 위한 심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시험의 합격자는 김해주군과 노동장학생 선배 법조인자의 특별장학생 (5명)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해주 (법정1) ▲송경석 (사2) ▲장상석 (사2) ▲신도상 (수) ▲손금태 (수).

司試 1次 12名 合格

제22회 司法考試 1次시험 합격자 6명을 포함 모두 18명이 응시합격하였다.

이번에 합격한 제1차 司試合格者들은 다음과 같다.

▲박기택 (법2) ▲노형태 (법3) ▲김문수 (법4) ▲윤재욱 (법3) ▲김광수 (법3) ▲김광수 (법3) ▲김태봉 (법3) ▲유철환 (법3) ▲박승규 (법3) ▲정영덕 (법4) ▲장진건 (법3)

수탐부 춘계훈련

30여명 부원참가

수송본부탐구부 (부장=이종·영문3) 에서는 지난 8日부터 10日까지 춘계 훈련을 서울 신입부원 춘계 훈련을 실시하였다.

각종 신 장비를 실제 동원한 이 훈련에는 총 30여명이 참가, 전원이 여명이었다.

한편 3日부터 9일까지 강릉원주에서 춘계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史學科고적답사

영주일원 3일간

문리대 (학장=閔錫鎬) 사학과 (과장=朴成壽) 에서는 지난 12日부터 2박3일간 영주, 안동, 풍기등지에서 고적답사를 실시하였다.

사학과 전학년이 대상인 이번 답사는 노동장학생 韓國現 학장의 배려로 실시하였다.

女學生會 會則 試案마련

女學生會 (회장=권영숙·경제3) 에서는 지난 8일 학생분회장 및 부분회장 연석회의를 열고 임간하계수련회 및 학생회 회칙 개정안 등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학생들의 학생회 회칙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민주적인 학생회 회칙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부분회장 중에서 추천된 5명의 구성원으로 회칙개정위원회 「회장」 「부회장」 「총무」 「학술」 「봉사」 「체육」 「문화」 「편집」 「회계」 「여학생회장」 「선거」 「회계감사」 「부회장」 등 9개부 동일집행부 구성을 골자로 하는 회칙개정안을 마련하였다.

女學生會 총회

女學生會 (회장=권영숙·경제3) 에서는 지난 8일 오후 4시 제1학년 대상으로 제1차 총회를 가졌다.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 1학기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학생회칙 개정안 설명, 하계수련회 실시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되었다.

고시장학생 선발

佛敎大學 1·3學年 대상

本校의 佛敎大學 1·3학년 (문학부 포함) 을 대상으로 한 장학생 선발이 지난 31일 이루어졌다.

이번 장학생 선발은 지난 1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하여 1학년 12명, 3학년은 56명 12월 31일 이루어졌다.

軍종장교 후보생 선발

本校의 佛敎大學 1·3學年 대상

本校의 佛敎大學 1·3학년 (문학부 포함) 을 대상으로 한 장학생 선발이 지난 31일 이루어졌다.

이번 장학생 선발은 지난 1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하여 1학년 12명, 3학년은 56명 12월 31일 이루어졌다.

「總學生會則 확정」

선거시행 세칙도

지난 4일 개최된 제2차 총학생회 회칙개정위원회 (위원장=정기정) 에서는 「총학생회 회칙」 중 선거관리에 관한 부분을 「총학생회 선거관리규정」으로 별도 분리하여 확정하였다.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선거인의 자격, 선거인명부의 작성, 후보자의 등록, 선거운동, 투표 및 개표, 당선인의 결정 등 선거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억 1천여만원 지급

奨學生수혜자 확정

1980학년도 제1학기 장학금은 작년 1학기보다 5천7백만원이 증액된 총 2억1천3백만원이로 首席·優等·雄辯·副首席·優秀·1천4등의 장학생에게 지급될 것이며 장학금 1천4등의 장학생에게 지급될 것이며 장학금 1천4등의 장학생에게 지급될 것이며 장학금

대마야, 바람은 보았느냐

박경리 朴景利

(一)

대마야, 바람은 보았느냐
너는 보았을 것이다
너는 보았을 것이다
너는 보았을 것이다

간 간 간 바람은
간 간 간 바람은

산 산 산 산에 이어진
산 산 산 산에 이어진

제762號 1955年10月13日 第3種郵便物認可 <주간보건100>

韓國文學의 신인상 당선자

현상의 業으로 文學을 택한 동기

목적의 배고픔 채우려 筆作 시작

현상의 業으로 文學을 택한 동기

목적의 배고픔 채우려 筆作 시작